새물리 학술지 Scopus 등재 국제 학술지로서의 새로운 도약

『새물리』의 발전을 기원하며

DOI: 10.3938/PhiT.25.014

홍 순 철

A Wish for the Advancement of New Physics:
Sae Mulli

Soon Cheol HONG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registration of New Physics: Sae Mulli (NPSM) in Scopus and my sincere thanks to all who has worked to achieve this goal, which is significant in several aspects. This achievement is the fruit of the continuous and successive efforts of all former presidents and board members and should increase the interest of researchers in a domestic journal published in the Korean language. In additio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will be better served and junior researchers will be encouraged to continue their effort as a result of the achievement. Finally, NPSM, as a Korean domestic journal written in a mother language, should attract reports on challenging research and promote future research.

작년 8월 한국물리학회에 국문지인 『새물리』가 세계 최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SCOPUS 등재지로 확정되었다는 공식적인 연락을 Elsevier로부터 받았습니 다. 한국물리학회가 발행하는 세 종류의 학술지 모두가 국제 학술지가 되는 쾌거이고 영문지가 아닌 국문지가 국제 학술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크게 기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새물리』의 SCOPUS 등재를 이루어내신 그 동안의 한국물리학회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자약력

홍순철 교수는 미국 Northwestern Univ. 이학박사(1988)로 한국기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점연구소 사업의 총책임자이다.
(schong@ulsan.ac.kr)

다.

『새물리』의 SCOPUS 등재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SCOPUS 등재를 한국 물리학회 삼대 회장단에 걸쳐 이끌어 내었다는 점입니다. 24대 회장단에서 SCI를 목표로 시작한 일이 수포로 끝나고 SCOPUS로 방향을 전환한 일을 25대 회장단이 이어 받아 상당부분 완성하였고 26대 회장단에서도 노력을 더 보탬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의미가 참 큼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 회장단에서 추진되다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 회장단에서 추진하였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회장단들의 해안에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물리학회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편집위원장이 학술지 발전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편집위원장 임기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두 번째로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국문지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문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문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영향력 지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20여 명의 노벨과학상을 배출한 배경에는 일본어로 공부하고 일본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플러렌(C₆₀)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일본어로 작성한 논문만 발표한 관계로 노벨상 수상을 놓친 경우^[1]도 있기는 해도 저변을 넓히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고에너지 분야에 서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좀 과장을 하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합니다.^[2] 노벨상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3]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 대부분은 공동연구자의 손을

REFERENCES

- [1] List of Japanese Nobel laureates,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인_노벨상_수상자.
- [2] Toshihide Maskawa,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마스카와_도시히데.
- [3] 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72562.html.

빌었습니다. 국문지 『새물리』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의 과학 저변을 넓히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이고 노벨상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노벨상 수상이 대한민국 과학계의 화두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톰슨로이터가 유룡 교수님을 2014년 노벨화학상 수상 예측 인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유룡 교수님뿐만 아니라 국내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날로 훌륭해지고 있어 요원해 보이던 노벨과학상을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에서 수행한 연구로 수상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를 키우듯이 경제력과 인적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긴 하나 노벨상은 올림픽 금메달과는 다릅니다. 올림픽은 정해진 규칙이 있으나 노벨상은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인 일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연구한 바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받게 하고 생애 전주기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4] 미국이나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 중에서는 출신학교의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1]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중언어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우리말로 사고한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새물리』 50주년을 맞이하여 권숙일 교수님께서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기고한 글에서 생애 첫 논문을 『새물리』에 투고하기를 권하셨습니다.^[5] 학생들이 첫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게 되면 학생의 논문이라기보다 교수의 논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어 문제로 인식하여 논리적인 논문 작성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생애 첫 논문의 국문 작성은 우리말로 마음껏 사고해서 논리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훈련이 되어 독창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과학이 선진과학을 빠르게 따라잡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학을 제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창적인 연구는 때로는 타인이 보기에 어설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설퍼 보이는 연구 결과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아 키워 갈 수 있는 장으로 『새물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일본 과학자가 쓴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서로서로 아낄 때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물리학의 저변을 넓히고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말로 된 논문이 많아야 합니다. 2011년부터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게재하고 있는 『새물리』 하이라이트의 다운로드 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된 과학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교사,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일반인에게는 우리말로 된 과학 정보가 영어로 된 과학 정보보다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물론 물리학을 전공한 연구자도 예외는 아니지 싶습니다. 총설 논문은 그 분야를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총설 논문을 『새물리』에 투고해 주시는 선도물리학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후학을 키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그 총설 논문이 내 연구에 도움이 되었노라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후학을 상상해 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 필요한 존재감을 높이는 데 글쓰기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용했던 말로 글쓰기가 가능하게 해 주신 세종대왕께 『새물리』가 SCOPUS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국문지 『새물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REFERENCES

- [4] George E. Vaillant, *Aging well :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translated by D. N. Lee (Frontier, 2002), p. 64.
- [5] S.-I. Kwun, Phys. High Technol. **20**(11), 2 (2011).